

בֵּית ספרים (책의 집)

『사랑이 한 일』

이승우 씀, 문학동네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동생이 자기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서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다...밤이 되었다. 빠른 발과 튼튼한 근육을 가진 형이 날카로운 살기를 몰고 뒤쫓아 올까 봐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내달린 그는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하룻밤 목을 곳을 찾아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 불 생각을 잠깐 했으나 곧 거둬들었다. 살기등등한 형이 그곳에 미리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는 따듯하고 아늑한 침실 대신 춥고 딱딱한 별판을 택했다. 그는 무너진 돌무더기 가운데서 길쭉한 돌 하나를 주워 베고 피곤한 몸을 누였다. 자기 신세가 한심하고 비참해서 한숨이 나왔다. 그의 몸을 가려줄 장막은 없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을 보호해주던 장막이 치워진 것 같은 허전함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가림막 없이 천지에 노출된 자, 벗겨진 자, 벌거숭이였다.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일과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사순절(四旬節)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모임 ① 정기 당화: 낮 예배 후, 담임목사실
3. 다음 주일은 '이사줍기' 헌금 주일입니다.
4.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영혼을 허무에 빠앗기지 않도록
감사로 채워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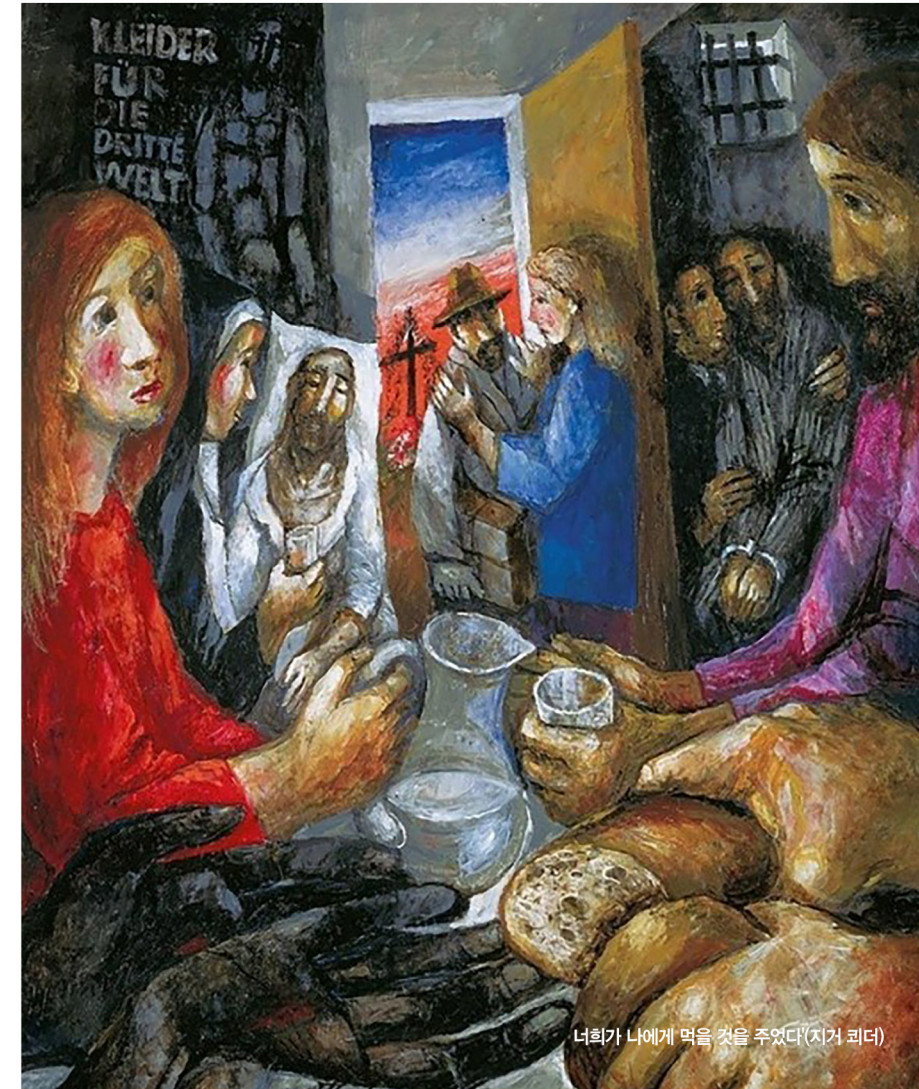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선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브라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협 061-691-7315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 산 교 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저 쿼터)

제51권 13호

2025년 3월 30일(사순절 네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주 일 예 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시편 121:1-2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47장(2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시편 32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 사 찬 송	272장(3절 후, 간주)
기 도	이기도 목사
* 성 경 봉 독	시편 32:1-5(구약 824쪽)
찬 양	비바람이 칠 때와
말 씀 선 포	용서의 신비
결단의 찬송과 기도	524장(2절 후, 간주)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4절)
* 축 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민경오 장로

- * 4월 안내위원 : 강은진, 서공숙, 이희자, 조은순
- * 4월 헌금위원 : 신중원
- * 4월 주방봉사 : 3, 10구역

생명의 말씀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32:1-5/새번역)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송 혁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손양선 권사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15:1-7(신약 120쪽)
말씀선포와 기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축 도	송 혁 목사

다음 주 기도 - 강해리 집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3일(목)	누가복음 18:31-43
31일(월)	누가복음 17:20-37	4일(금)	누가복음 19:1-10
1일(화)	누가복음 18:1-14	5일(토)	누가복음 19:11-27
2일(수)	누가복음 18:15-30	6일(주일)	누가복음 19:28-48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이상한 나라가 달려온다!
(이사야 55:1-9)
[성서일과표/이사야 55:1-9, 시편 63:1-8, 고린도전서 10:1-13, 누가복음 13:1-9]

구약성서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로의 책”으로 불리는 제2부(40-55장)는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선언과 새로운 나라가 달려오고 있다는 선포로 둘러 싸여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이야기 가운데 한 문장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오리니!” 한 주간 내내 저를 설레게 하고 흥분하게 한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은 “보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절망과 체념에 사로잡힌 이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는 외침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포로였던 그들이 고대하던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무르게 해줄 수 없는 나라였지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가 달려오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찍이 알지 못했던 나라, 이스라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가 달려오고 있다.” 참 멋진 시(詩)지요? 그가 노래한 낯설고 감추어진, 우리가 경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 즉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의 통치 철학이 세상의 그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은 ‘사랑, 인자, 은총, 친절, 연민, 꾸짖음’(혜세도입니다. 하지만 힘에 기초한 세상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 나라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하신 것이지요.

작가 이승우는 바벨탑을 쌓아 신과 같이 되려는 부질없는 욕망의 노예가 된 이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하늘에 닿은 것 같았지만 탑의 꼭대기에 올라 있는 사람의 눈에 하늘은 여전히 그만큼 높은 곳에 있었다. 하늘은 달아났다. 그들이 올라온 만큼 올라갔다. 그들이 높아진 만큼 높아졌다. 그것이 하늘의 부동성이었다. 사람들이 움직여서 높아져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높은 채로 있었다.” 시인과 소설가의 글쓰기가 다르면서도 깊고 높기만 합니다.

지난주 매일성경 본문 누가복음 14장은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따르는 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따라갈수록 숨이 멎을 만큼 이상하고 충격과 불평의 연속이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산헤드린 회원인 바리새파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를 따르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도 함께였는데, 수종병(水腫病)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질병을 부도덕함의 결과로 보았으니, 그는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나? 옳지 않으나?”라고 물었지요. 대답하는 이가 없자 예수는 그를 고쳐 돌려보내신 다음, “너희 가운데서 나귀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였지요. 어안이 병병한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처럼 초대만 으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겠지요. 경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깔아내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참으로 낮은 것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이 속으로 분노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번에는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에게 앞으로 잔치를 열 때는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를 초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부자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라는 히브리인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소외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종교적으로 멸시 당하는 자들을 환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시 가난과 장애는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기자는 사람들의 침묵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낯설기만 한 하나님의 통치 철학에 대한 반응이지요.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연설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길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는 점에서 넓은 길이지만,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는 점에서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지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쏠살같이 달려오고 있는 이유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이스라엘)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공동체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이 있을까요? 예언자는 주님을 찾고자,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라고 외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 우리를 알지 못했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고, 그 완성을 향해 쏠살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영적 상상력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며 세상 끝날까지 전하여 하나님의 자람이 되는 만민의 공동체가 되기를! 살롱.